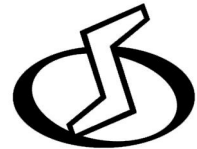


#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16호 2007.1.25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고흥길/편집인:조영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전화:788-2371 ~6. 788-3081 ~6. FAX:788-3571

## 이사장 신년사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아울러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가 돼지해인 만큼 좋은 기운을 받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더욱 더 발전하는 속기협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협회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켜보니 주마등처럼 많은 것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사장을 맡고 열심히 해 보려던 처음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 협회를 위해서 해야겠다고 계획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어 놓았는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남은 동안에도 협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사실에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묵묵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속기협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연륜이 쌓여 가는 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해서, 속기인 상호간 속기술의 기량 겨룸을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한 속기경기대회, 전 세계 속기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인터스테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속기협회의 자리를 지켜 나가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되고 향상된 모습으로 개척되어 우리 속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협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장 혼자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질책이나 충고가 우리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디지털 국회 구축에 이어 올해는 헌정사 이래 대한민국 국회와 늘 함께했던 국회 속기과라는 명칭이 ‘의정기록과’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의 변화에 걸맞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무쌍에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 속기인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협회가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겨냅시다. 협회는 언제나 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를 보내고 2007년 새해를 맞은 그 처음의 마음가짐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힘껏 뛰어 봅시다.

저희 집행부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창진

## 신입 인사

### - 의정기록과 신입을 소개합니다!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 입사한 13명의 새내기 속기사들을 소개합니다.

2003년 처음 국회 시험을 보고 떨어졌을 때 학교에 가느라 매일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당산철교를 지날 때마다 국회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괴로워서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던 국회의 돐 안에 들어와 있자니 설레고, 아직은 건물의 동서남북도 모르지만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기자영이 되겠습니다.

기자영

스물한 살……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속기와 만나다! 이모부님의 권유로 처음 등록하게 된 속기학원. 그때 만난 속기자관은 낯설었지만 그 자관이 나의 인생을 바꾸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스물두 살…… 대학교 3학년. 무한감동의 한 해! 아직 진로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을 나이에 나는 당당히 국회 속기사가 되었다. 아직도 생생한 그때 그 감동…… 두둥!

스물세 살…… 드디어 사회인 되다! 아직 학생 꼬리표도 떼지 못한 채 23살의 시작을 국회에서 맞았다. 아직 모든 것이 새롭지만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국회 안에서 큰 그릇이 되어가는 김나영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나영-

소망했던 국회에 들어온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도 다녀오고 회의장도 많이 들어가고 또 회의가 늦게 끝나면 새벽에 택시 타고 들어가도 보고…… 국회 오기 전에는 상상만 했던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내 집처럼 편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상경-

의정기록과 유희정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나서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속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

가장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해 볼 수 있었고 보람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접해 보는 일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설레고 기대되면서 한편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유희정-

속기협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의정기록과 새내기 직원 이근역입니다.

수필속기를 필두로 속기사의 길로 접어든 지 12여 년 만에 대한민국 속기계의 최고봉인 국회 속기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입사는 비록 늦었지만 속기에 대한 애정은 어느 누구 못지않기에 속기협회와 속기협회 가족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속기협회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역-

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짧은 소개글이지만 국회 속기사로써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속기사무소, 법원을 거쳐 멀리 돌아 국회에 입성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교육 중 선배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생각합니다. “1년을 일해도 10년 같은 실력, 10년을 일해도 1년 같은 마음가짐”, 저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그리고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발판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 속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유진-

늦은 나이에 시작한 속기, 그리고 국회시험……

그랬기 때문에 더욱 절박했고 그렇게 오고 싶던 국회에 들어왔다. 사실은 아직도 내가 국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합격만 하면 고생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

-이윤정-

2007년 1월 2일, 내가 앞으로 국회 속기사로서 일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은 온통 긴장상태에 있었고 하루종일 벅찬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국회에 온 지 아직 20여 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는 내내 선배님들께서 탄탄하게 잡아 온 국회 속기사 실무체계에 감탄하며 저절로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다. 앞으로 나도 국회 속기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실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잊지 않을 것이고 선배님 그리고 동료들과 화합하여 국회 의정기록과의 조직문화를 건전하고 활기차게 형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현정-

국회 근무 6개월째……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의정기록과는 속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끊임없이 배워야만 하는 곳, 사람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록하는 우리 속기사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름 모를 자부심이랄까. 그래서 국회 속기사라는 직업은 수험생 시절이나 꿈을 이룬 지금이나 내겐 너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아 보자면 많은 업무량에 대해 느꼈던 실망보다도 흐트러진 자세의 내 모습을 볼 때였다.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갈망했던 그때의 마음가짐대로 늘 처음을 기억하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조미래-

반갑습니다. 지성숙입니다.

국회시험 면접에서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체력이었습니다. 그땐 사실 속으로 웃으며 “문제없습니다” 큰소리 외치며 들어왔건만 전 직장과의 비교되는 일의 양 차이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많다, 많다 하지만 회의가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었거든요. 면접 질문으로 왜 제일 처음 체력을 물어보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보냈던 시기에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어서 무사히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이름처럼 좀더 성숙한 자세로 또 직장 선배·동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지성숙-

따스한 봄 윤종로 벚꽃 사이에 우뚝 솟아 있던 국회의사당. 그렇게나 입성하고 싶던 국회에 나는 적지 않은 나이에 들어오게 되었다. 20여 일의 시간 동안 신입 속기사로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동기들, 여러 선배님들과 어울려 생활하다 보니 국회 속기사로서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신입 교육 때 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1년차 때에도 10년차 같은 실력, 10년차 때에도 1년차 같은 마음”이라는 문구를 항상 생각하며 처음 발령받았을 때 스스로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국회속기사가 되겠다. -채지희-

2003년 4월 속기를 처음 시작해서 2006년 국회 속기직에 합격하고 2007년 1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합격한 이후 꽤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기다림이 지루하기도 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의정기록과’란 속기과의 새로운 이름과 동기들, 그리고 내가 속하게 된 1과 2계 선배님들,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앞으로 펼쳐질 국회에서의 나의 생활에 기대와 희망을 가득 채워 본다. -최성향-



국회 속기사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시작이다. 온통 모르는 것투성이고 배워야 할 것,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하루하루가 모자라다는 걸 느끼게 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속기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국회가 좋고 내가 국회 속기사라는 게 자랑스럽다. 어떤 선배님의 말씀처럼 회의록을 만드는 건 기능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일하고 싶다. -허정현-

이윤정, 김나영, 이현정, 채지희, 조미래, 허정현, 유희정, 이근익, 기자영  
지성숙, 최성향 이윤진, 서상경(윗줄 왼쪽부터)

## 이사회 소식

▷ 제203차 이사회는 2006년 6월 8일 개최되어 ▲ 보고사항으로 회무보고가 있었고 ▲ 각 부 사업계획 조정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부, 국제부, 홍보부, 자격심사위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의 건으로 속기학술세미나 시 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제204차 이사회는 2006년 8월 1일 개최되어 ▲ 제14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속기경기대회 결과를 보고받고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될 인터스테노 참석 회원 선정을 이사장과 국제부에 일임함과 동시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속기경기대회를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총회 때 실시하자는 의견과 인터스테노 참석과 관련하여 국제부에 인터스테노 풀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제205차 이사회는 2007년 1월 18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 제40회 정기총회 관련 논의가 있었고 ▲ 2006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결산보고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별이의 없이 2006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부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속기에 대한 홍보, 속기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공 지 사 항

### ▷ 협회 전화번호 안내

국회 속기과가 의정기록과로 개편되면서 속기협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의정기록1과1~6담당(tel 788-2371~6)

▲ 의정기록2과1~6담당(tel 788-3081~7)

###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기대합니다.

▲ 연 락 처 : 총무부 788-2374 유미형(총무부장)

788-3083 이봉선(재정부장)

▲ 회비납부 : 036-01-112844 농협중앙회국회지점 이봉선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홍보부 788-2373 김영중(홍보부장)